

세월호 아픔 다룬 독립영화 '눈길'

27일 금강역사영화제 개최

군산시와 서천군이 양 도시 간 역사와 문화를 소재로 하는 금강역사영화제가 독립영화 상영회를 개최한다.

오는 27일 구. 군산세관(인문학 창고 정담)에서 열리는 이번 독립영화 상영회는 얼마 전 추모 5주기를 맞이한 세월호 사건을 다룬 두 작품을 선별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4.16 세월호 참사라고도 불리는 이 사건은 2014년 4월 16일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하면서 전체 탑승객 중 승객 304명이 사망 및 실종된 대형 참사로 현재까지 5명은 미수습자로 남아 있다.

장준엽, 진정하, 전신환 감독의 '봄이 가도'(75분)와 금강역사영화제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대현 감독의 '내 신발에게'(14분) 두 작품을 상영하며 영화 상영 후에는 진정하, 전신환 감독과의 씨네토크가 진행된다.

'봄이 가도'는 그 날 이후 봄의 기억을 안고 살아가는 이들의 특별한 하루를 담은 가족영화이고 '내 신발에게'는 버티컬 댄스를 통해 이미지로 추모를 담은 단편영화이다.

금강역사영화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2회 금강역사영화제를 알리고 역사영화와 독립영화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키기 위해 독립영화 상영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 최초의 역사영화제인 제2회 금강역사영화제는 다음달 24일부터 26일까지 열리며 24일 군산 예술의 전당 개막식을 시작으로 역사테마 영화 상영 및 감독, 배우 등 게스트 초청, 영화관련 전문가 강연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군산=김정훈 기자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즐겨요"

진안군청 강당서 24일 '오! 금남식당' 공연 열려

진안군은 매일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평일 외부 문화 활동이 어려운 직장인과 군민들을 위해 '오! 금남식당' 공연을 준비했다.

직장문화배달사업의 일환으로 열리는 이번 공연은 오는 24일 오후 4시 30분 진안군청 강당에서 열린다.

극단 토박이들이 1980년 5월 광주 사람들이 밥을 짓고, 김치를 담아 함께 먹고 나누고 보살핀 나눔의 이야기를 다룬다.

직장문화배달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재)지역문화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매달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전국에 있는 근무지로 직접 찾아가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맞춤형 문화 체험 프로그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공연은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관람할 수 있는 공연 주제인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라며, 앞으로도



군민들을 위한 다양한 장르와 특색있는 문화향유 기회를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남원 춘향제가 오는 5월 8일부터 12일까지 광한루원과 요천 일원에서 개최된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춘향제.

춘향과 몽룡의 사랑이야기에 다같이 '풍덩'

남원시, 춘향제 2차 추진상황보고회 개최

남원 춘향제추진위원회는 오는 5월 8일부터 12일까지 '광한춘몽(廣寒春夢)-사랑에 빠지다'라는 주제로 광한루원과 요천 일원에서 개최하는 제88회 춘향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19일 시청 회의실에서 추진상황보고회(2차)를 갖고 올해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는 각 행사담당과 제전위원 등 60여명이 참석해 행사종목별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다.

올 제88회 춘향제는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며

형식적인 기념식행사를 과감히 없애고, 개막 공연을 중심으로 춘향제의 서막을 알리는 한편, 가족관광객을 위해 어린이공연, 인형극, 거리마술쇼, 페이스페인팅 체험을 마련한 몽룡볼이터가 신설 되었으며, 관광객 유치를 위해 대중공연 및 거리버스킹 등 대중성 있는 프로그램도 강화했다.

또한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주생비행장과 춘향골체육공원을 왕복하는 셔틀버스를 운행해 축제장의 주차난 해소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며, 외지 관광객들은 승사교에서 하차하면 편리하게 축제장을 찾을

수 있다. 또한 가족과 연인과 친구와의 우정과 사랑을 확인 할 수 있는 흥겨운 공연과 다양한 프로그램 및 축제를 즐길 수 있는 각종 부대시설 등의 준비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 이환주 시장은 "춘향제의 주제인 '광한춘몽(廣寒春夢)-사랑에 빠지다'와 같이 관광객들이 모두 축제에 푹 빠져 즐길 수 있도록 마무리 준비에 박차를 가해 달라"고 당부했으며, 임용택 춘향제추진 집행위원장은 "이번 보고회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을 신속히 개선하고 마무리해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봄바람 타고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가득한 익산으로!

재즈 공연 · 유적 탐방 · 무료영화 등

익산시(시장 정한울)가 4월 문화가 있는 날인 24일과 해당 주간(22~28일)에 소리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시설에서 다채로운 문화행사와 특별한 혜택으로 시민들과 함께 문화예술 나들이를 떠난다.

#1,400년 전의 사랑 이야기 '소리&재즈' 소리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는 24일 밤 7시 30분, 선화공주의 사랑을 소리꾼 이용선과 랩퍼 우태우, 재즈피아니스트인 함께하는 융복합 공연인 '소리&재즈'가 관객들을 무료로 찾아가는다.

#박물관에서 즐기는 특별한 문화체험 익산의 3개 박물관에서는 '문화가 있는 날'에 지역민이 일상에서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박물관 교유의 콘텐츠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왕궁리 유적전시관에서는 27일 '무왕길 찾아 떠나는 여행'을 실시한다. 참가자들은 9시에 미륵사지 유물전시관에서 집결해 해설사와 함께 사자사와 미륵산 정상에 따라 미륵산성을 따라 걷는다. 참가비는 3천원이며 21일까지 사전신청을 받은 30여 명이 참여한다.

기타 문의 사항은 왕궁리유적전시관 (☎063-859-4632)로 하면 된다.

마한박물관에서는 24일 오전 10시 오감 만족

마한 옥팔찌 만들기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보석박물관에서는 27일부터 28일 2일간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천연 보석 팔찌, 이니셜 은반지, 공룡화석 지우개 만들기 체험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도서 두 배로, 영화 무료 또는 반값으로 쓴다

모현·영등·마동·부송·황등 시립도서관에서는 24일 '공공도서관 두배로 day'를 진행하여 당일 1인당 도서를 2배로 대출받을 수 있다.

또한 27일에는 무료로 영화를 상영한다.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립도서관 홈페이지 (<http://lib.iksan.go.kr>)를 참조하면 된다.

익산 공공영상미디어센터 재미극장에서는 24일 19시부터 영화 '위플래쉬'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또한 익산 CGV, 롯데시네마에서는 24일 당일 17시부터 21시 사이에 상영하는 영화를 할인된 가격 5,000원에 관람할 수 있다.

한편 '문화가 있는 날'은 국민들이 일상에서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매달 마지막 수요일(해당 주간 포함)에 다양한 문화 혜택을 제공하는 날이다.

익산시는 매일 문화가 있는 날에 공연, 전시, 체험 프로그램 등을 다채롭게 운영해 시민 누구나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익산=장인연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maeil.com

2019 대한민국 대표축제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www.firefly.or.kr

2년 연속 문화관광 대표축제 선정

무주 반딧불축제

Muju Firefly Festival

2019. 8.31 토 ~ 9.8 일

무주군